

사료구매자금 지원정책 현황과 효율적 운영방안



송우진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서론

작년 8월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옥수수 선물이 톤당 327달러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옥수수 가격은 점차 하락하며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과거의 추세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옥수수 연평균 가격은 2008년의 208달러에 비해 36% 높은 282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도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옥수수는 배합사료의 주원료로써 사료가격은 옥수수 가격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사료가격의 상승은 축산농가의 경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축사육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료비로 육계사육의 경우 그 비중이 60%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큰 항목이다.

따라서 사료가격이 상승하면 축산농가는 상당한 수준의 경영압박을 느끼게 된다. 또한 같은 시기에 축산물 가격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었다.

돼지 경락가격은 2011년 5,289원/kg에서 2012년 3,253/kg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작년 한해 생산비 상승과 축산물 가격하락의 이중고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축산농가의 고통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료구매자금지원 정책의 시행으로 연결되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료구매자금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료가격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 사료구매자금지원정책의 시행

많은 축산농가는 배합사료 구매 시 현금 거래보다는 외상거래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외상거래에 따른

이자가 부과되는데 이자율은 연 15%정도에서 형성되어 있다.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하면 외상거래 이자율과 정책자금 이자율의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사료구매자금지원은 1조 5천억원의 재원으로 연 1.5%(농가부담 분)의 이자율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정책자금 지원을 받아 외상거래에서 현금거래로 전환하는 농가에게는 연 13.5%(=15%-1.5%)의 지원효과가 있다.

사료구매자금지원정책의 시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에도 사료곡물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고 사료비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매자금지원정책이 시행되었던 경험이 있다.

그 당시 용자 재원은 1조 5천억 원이고 농가부담 이자율은 1%로 이번 지원정책 이자율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이번 용자금의 상환기간은 2~3년으로 2008년 비해 기간은 상향 조정되었다.

하지만 올해 시행되는 정책이 차별화 되는 부분은 사육규모 감축을 지원조건으로 추가한 것이다.

사료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축산물의 판매가격이 사료가격 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다면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경영에 압박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작년에는 사료가격이 상승하고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 동시에 발생하였다.

축산물 가격 하락의 원인은 축산물 공급의 증가이다. 그간 축산물 가격이 높아 농가의 사육의지가 고조되었고 사육규모와 공급량 증가로 나타난 것이다.

사료구매자금지원정책은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생산보조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생산보조정책은 생산량을 늘리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생산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의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급과잉 국면에서 생산량 조절의 기회를 놓치면 향후 가격하락에 따른 더 큰 고통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자금지원정책이 갖는 생산량 증대 효과의 일부를 상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육규모 축소 조건을 제시한 것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의 경우 암소 20만 마리, 한돈은 모돈 10만 마리 감축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 사료가격 안정화 방안 모색

사료구매자금은 예상치 못한 급격한 생산비 인상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생산농가일수록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으로써의 효용성이 있다.

또한 생산비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인 경우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다시 증가하는 조정과정 없이 생산비 상승에 대응할 수 있다

는 점도 효율적인 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비효율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 사료곡물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를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사료곡물의 급등락 때마다 대규모의 정부재원 투입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비효율의 요소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사료곡물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정책이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곡물가격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사료구매자금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사료곡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을 증대하는 것이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료곡물의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가 국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곡물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격 통제력이 없는 품목인 사료곡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한우와 젓소의 경우 배합사료를 조사료로 상당 부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입곡물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 사료가격 안정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재 사료곡물의 구입처를 다변화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료곡물 구입처는 미국을 포함한 소수의 국가로 편중되어 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수입량의 80% 정도가 미국으로부터, 소맥은 호주, 대두박은 남미로부터 주로 도입되고 있다.

수입국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해당 국가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구입의 효율성과 함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구입처를 분산시켜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해외 사료곡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 국내 자본으로 해외 농산물에 투자가 이루어지면 향후 안정적인 물량확보를 위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수입국 현지에 투자를 진행중에 있다.

넷째, 해외곡물 구입 시 장기계약 또는 선물계약을 활용하여 곡물 도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일부 대기업의 면접조사에 의하면 선물거래를 활용한 구매량이 전체 물량의 20~3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거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 비중이 더 떨어질 것으로 추측된다. 선물거래는 특성상 거래를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손실의 위험이 상존한다. 하지만 곡물가격 급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부존자원을 사료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부존자원이란 농산부산물과 식품부산물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에코피드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료의 위생 안전성 문제만 해결되면 안정적인 원료 조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폐자원이 재활용되기 때문에 환경개선의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 결론

축산업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수입축산물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저해하는 생산비 상승이라는 악조건에 직면해 있다. 농가는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료업체도 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 또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시장 상황은 항상 들고 들기 마련이다.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좋은 상황을 마주할 것으로 확신한다. 지금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축산업은 한단계 더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 ☞